

## 장관 주재 간담회 및 송년 리셉션 열려

### 방위산업 현안토의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국방

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2월 10일 국방회관에서 이준 국방부장관 주재로 70여개 방산업체 대표 및 국방부관계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의 현안 토의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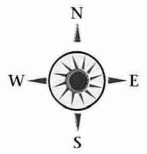
이날 이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전환기적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미래 지향적 군사력 건설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의 방위산업 현실은 내수물량의 한계와 수출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 경영난 가중, 기술개발 부진, 방산시장 개방 압력 등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이에 국방부에서는 방위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5%미만 수준에 있는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끌어 올리는 노력과 함께, 국방 투자사업의 일관성·투명성 있는 추진, 국내 연구개발 활성화와 원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산육성기금 지원 확대, 그리고 수출 증대를 위한 국제방산협력과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심이택 방진회장은 답사에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군장병들의 숨은 노고와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국방부에서 방산업체 경영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우리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우리 군이 완벽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방산물자 생산과 부품 국산화에 매진 하겠으며, 방산물자의 국내 수요 한계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산정책설명회에서 국방부는 방산 계약 및 원가 규정 개정 추진, 부품국산화 개발비 가격보상 추진, 방산물자 수출관련 공지사향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

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국방부장관과 방산업체 대표간 토론에서는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2001년 10월 방산간담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장관주재 1회 및 획득실장주재 4회 개최에 이어 여섯번째로 열린 것으로, 이 같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방산업체와 정부간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중공업,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 수주

### 5천5백톤급 KDX-II형 미래의 주력 함정

**현대** 중공업(대표 : 최길선)이 해군으로부터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1척을 1,330억원에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함정은 KDX-II형으로,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의 주력 함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함정은 특히 함정의 구조와 열, 소음 등의 노출에 대해 기밀성을 확보함으로써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현대중공업이 자체 설계한 스텔스 함정이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배수량이 5천5백톤으로 현재 한국 해군이 주력 함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울산급(FF) 및 광개토태왕함급(KDX-I)에 비해 월등히 크다. 5인치 주포와 함대함 유도탄, 함대공 유도탄, 어뢰 등을 갖춤으로써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해군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2000년에도 동형의 함정을 1차로 수주해 건조 중에 있으며 3월 진수를 앞두고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함정을 건조

해 온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해군에 경비함, 군수지원함 등의 함정을 수출한 바 있다.



## 2002년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를 주제로

### 2002년 防産 政策 심포지엄 衛産業의 育成 發展을 위한 政策 方案

2002. 12. 18(水)

韓國 防衛産業 振興會



#### 방위

산업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2002년 방산 정책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18일 캐피탈 호텔에서 산·학·연·관·군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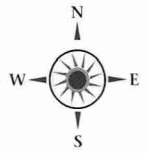
심이택 방진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지난주 간담회 시 장관님께서 우리 군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방부는 투명성을, 방산업체는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현재 국내 수요물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체가 힘을 합쳐 수출 대상국의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방산업체는 첨단 핵심기술의 축적을 통한 기술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해외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과 함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이 「체계획득」 중심에서 「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도 보다 양질의 방산물자 생산과 부품 국산화에 매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날 격변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군사적 위협은 물론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철통같은 전방위 국방태세확립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사상 유례없는 수해 등 재난 속에서도 우리 군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되어 고통을 함께 극복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다한 뿌듯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음을 재삼 인식하며, 국가안보의 동반자인 산·학·연·정부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나가고 각자 주어진 소임을 다할 때, 방위산업의 재도약과 번영은 반드시 이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태영 국방부 군사혁신단장의 사회로 정진태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방산지원과장의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발전 방안」, 김철환 국방대 교수의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 방안」, 김용섭 품관소 사업총괄담당관의 「방산물자 품질보증의 발전 방안」, 김성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방위산업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와, 최성빈 한국국방연구원 무기체계연구센터장, 한남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서대병 로템 중기생산부부장,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실장이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 국내 최초 액체추진과학로켓 시험 발사 성공

## 2005년 위성 발사 위한 우주발사체 KSLV-1 개발 기반 다져

**우리** 나라 100%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액체 추진로켓인 KSR-III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SR-III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52분 26초에 태안군 안흥 앞바다의 한 섬에 있는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뒤 이날 오후 2시 56분 17초에 서해상에 설정한 목표 지점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KSR-III는 목표 고도인 42km보다 약간 높은 42.7km까지 솟아오른 뒤 79km를 비행했다. 비행 시간은 231.44초였으며 로켓 연료 점화 시간은 53초였다. KSR-III는 길이 14m, 직경 1m, 중량 6톤으로 항공유와 액체산소를 연료와 산화제로 각각 사용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액체추진 로켓이다.

지난 '93년과 '97년 발사된 KSR-I과 II가 고체연료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액체연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KSR-III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고체나 액체연료중 한 가지 기술만 보유할 경우 로켓분야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주항공분야의 선진국들은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상용화하고 있어 한가지 연료 기술로 이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KSLV-III)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해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의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체연료 로켓발사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가야 할 행로의 한 단계로 분석된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지난 '99년에는 소형 위성인 우리별 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1호까지 독자개발하는 등 위성기술에는 나름대로 그 족적을 남겨 왔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위성을 지상 3만5천km 이상 높이의 정지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발사체인 KSLV-I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일 뿐,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가야 할 길은 멀기만하다.

궁극적으로 위성분야에서는 정지궤도 위성까지 국산화해야 하며 발사체 분야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을 국내에서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2005년까지 1백kg급 소형 위성 발사체(KSLV-III)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로켓)를 자력으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항공우주기술 발전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액체 추진과학로켓의 성공으로 입증된 핵심 기술을 토대로 ‘우리 위성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국가 우주개발 목표의 달성 전망이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